

# 一山 金斗鍾의 韓國 書誌學的 位相\*

The Legacy of Doo-Jong Kim Ilsan in Korean Bibliography

曹 炯 鎮 (Cho, Hyung-Jin)\*\*

## ◁ 목 차 ▷

- |                     |               |
|---------------------|---------------|
| 1. 緒 言              | 5. 一山 金斗鍾의 位相 |
| 2. 書誌學的 領域과 韓國의 書誌學 | 6. 結 論        |
| 3. 印刷技術의 重要性과 種類    | <참고문헌>        |
| 4. 韓國의 古印刷와 그 位置    |               |

## < 초 목 >

- 1) 한국의 서지학은 판본학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 2) 한국의 인쇄술, 특히 활자 인쇄의 발달은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찬란하였다.
- 3)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목판본 『無垢淨光大陀羅尼經』과 『팔만대장경』의 경판을 보유하고 있다. 금속 활자는 서양보다 200년 이상 앞서 발명하였으며, 그 발명작도 보유하고 있으며, 현존 最古의 금속활자본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을 1377년에 인쇄하였다. 이후 70여 종 이상의 활자를 조성하여 서적을 인쇄하였다. 이점에서 한국 고인쇄문화의 위상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 4) 일산은 목판인쇄문화사, 활자인쇄문화사, 인쇄기술사, 근대인쇄 연구는 물론 일산문고를 구축함으로써 한국 서지학의 기반을 닦았다.

要語: 한국 서지학, 한국 인쇄술, 목판인쇄문화사, 활자인쇄문화사, 일산문고

## < ABSTRACT >

- 1) The development of Korean bibliography has been led by physical bibliography.
- 2) Korean printing technology, especially typography, had marked unprecedented development in the world.
- 3) Korea is the only country that has *Mugujonggwang dae daranigyong* in woodblock edition and woodblock of *Palman daejangkyung* in the world. Korea invented metal type at least 200 years earlier than West and still retains the invented types. It had also printed the oldest existing metal type edition - *Backwoon hwasang chorock pulcho chikchi simche yojol* in 1377. Korea has developed more than seventy different kinds of types since then. In this regard, the status of Korean early printing culture is no less significant than that of any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 4) Ilsan had laid the foundations for Korean bibliography by pioneering into the fields of cultural history in woodblock printing, type printing, printing technology, and modern printing as well as building up Ilsan collection.

Key words: Korean bibliography, Korean printing technology, cultural history in woodblock printing, cultural history in type printing, Ilsan collection

\* 이 논문은 “一山 金斗鍾의 韓國古印刷技術史 研究”(『애산학보』 38(2012. 4), 115-160)를 보완, 압축한 것이고, 2017년 6월 9일 국립중앙도서관 제6회 고문헌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 강남대학교 KNU참인재대학 교양학부 교수(chohj@kangnam.ac.kr)

접수일: 2017년 8월 28일 최초심사일: 2017년 9월 11일 심사완료일: 2017년 9월 17일

## 1. 緒言

일산 김두중 박사가 한국 서지학 발전상에 남긴 족적은 서지학의 대가나 1인자나 하는 분들조차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지학 영역에서 아직까지 이를 조명하거나 기리는 등의 활동은 필자의 논문 한 편이 전부로 기억된다. 서지학도로서 송구함을 금하지 못한다.

필자가 일산 김두중 박사를 뵈는 것은 1987년 국립대만대학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 처음 참석한 서지학회의 학술발표회 때로 기억된다. 그 후엔 다시 뵈지 못하였으니 생전에 딱 한 번 뵈는 것이 전부다. 김두중 박사로부터 직접 사사받지는 못하였지만, 글을 통하여 배운 바가 적지 않았다. 특히 유학 기간 중에 김두중 박사님의 모든 연구물을 독파하다시피 하였다. 한 편 한 편 읽어갈 때마다 서양 의학을 전공하신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서지학 분야의 연구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서지학의 개척자라며 경탄하곤 하였다. 이 글을 쓰는 것도 김두중 박사의 연구를 일별한 인연이 있었기에 인사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이다.

김두중 박사의 서지학 분야 연구 업적은 크게 ① 한국인쇄술의 효시, ② 중국판본의 수입, ③ 고려시대 판본의 발달, ④ 활자인쇄의 기원, ⑤ 조선시대 활자본의 발달과 복각, ⑥ 조선시대 목판본의 발달과 책판목록, ⑦ 활자인쇄술의 일본 전파, ⑧ 활자인쇄의 기술과정, ⑨ 근대 연활자의 수입, ⑩ 고서의 수집 등 10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서사와 판본의 감별<sup>1)</sup>을 제외하면, 한국 판본학의 원류를 망라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일산 김두중 박사의 한국 서지학 발전상의 위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우선 한국 서지학의 연구 경향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일산의 업적과 대비함으로써 일산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서지학도에게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분발을 촉구하고자 한다.

## 2. 書誌學의 領域과 韓國의 書誌學

서지학이란 고문헌을 수집·정리·보존하여 오늘날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학문이다.

고문헌의 수집은 이미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모두 수집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부분에서 개인이 수집 소장하다가, 사후에 유족에 의하여 기증하는 방식으로 수집되고 있다.

고문헌의 정리는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다. 이는 분류·편목으로써 완성된다. 누락된 사항을 추적하기도 하고, 감별 작업도 필요하다.

고문헌은 한번 인멸되면 영원히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1) 판본의 감별도 기실은 언급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일산의 연구를 소화하면 독자 스스로 감별을 위한 요소를 추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비교 정리하면 곧 판본의 감별 방법이 된다.

온습도·방화·방두·방서 등의 장치가 필요하며, 이용도 보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마스크·면장갑 착용 등의 통제 하에 하여야 한다.

이 같은 기초 활동이 서지학의 연구 영역이며, 이러한 연유로 學中之學·學問에의 入門學·治學 涉徑之學 등으로 일컫기도 한다.

## 2.1 書誌學的 領域<sup>2)</sup>

### 2.1.1 校勘學

원문을 바르게 인식하고 복원하기 위해 문자나 편권을 대교 또는 고증하고, 그 본문의 역사와 전래를 연구·비평하여, 원문의 완전을 기하려는 분야이다. 교감학 또는 교수학으로 칭한다. 교수학의 경우 광의로 해석하여 목록학까지 포괄하기도 한다. 위작이나 위서를 판별하는 연구가 이에 속한다. 서양은 원문서지학(textual bibliography)으로, 일본은 내용서지학이라 칭한다. 중국이 학문의 발상지답게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다.<sup>3)</sup>

### 2.1.2 目錄學

고금의 문헌을 체계적으로 편성하거나, 한 국가나 역조 또는 주제별로 학술의 원류와 추이를 기술하거나, 서목을 연구하는 영역이다. 목록학이라 칭한다. 편목·해제·총서·색인류·초록류 등이 이에 포함된다. 서양은 체계서지학(systematic bibliography)·주제서지학(subject bibliography)·지적서지학(intellectual bibliography)으로, 일본은 내용서지학이라 칭한다. 중국과 일본이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고, 한국은 장서목록·분류·편목 정도를 연구하는 수준이다.

### 2.1.3 板本學

간·사본의 물리적 특징을 연구하여 판종과 생산 시기를 고증하고, 책의 형태를 연구하는 영역이다. 판본학이라 칭한다. 일본과 서양은 형태서지학(physical or material bibliography)이라 칭한다. 연구 범위는 책의 정의, 기원과 발달, 장정의 종류와 변천, 인쇄의 기원과 발달, 활자의 종류와 특징, 판종, 판식, 자체, 피휘자, 각수, 장서인과 수집전래, 목색, 지질 등이 포함된다. 연구방법은 전통적 방법에서 더 나아가 오늘날 과학적 방법의 응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한중일 삼국이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으나, 중국과 일본은 목판본 중심의 연구가, 한국은 활자본 중심의 연구가 활발하다.

2) 千惠鳳, 『羅麗印刷術의 研究』(서울: 경인문화사, 1980), 3-5.

3) 王叔岷, 『校讎學』(臺北: (中華民國)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1995).

## 2.2 韓國의 書誌學

### 2.2.1 韓國 書誌學의 特徵

혹자는 교감학과 목록학은 학문의 주제적 배경과 조예만 있으면 연구할 수 있는 성격의 학문이나, 판본학은 간·사본의 감별이 중심 연구 과제이므로 학문적 조예와 지식 외에 책의 형태적 특징에 대한 감식 능력의 토대 위에서 연구할 수 있다<sup>4)</sup>고 하여, 판본학이 가장 높은 수준의 학문인 듯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문적 난이도는 그렇지 않다.

교감학은 원전의 내용에 의심이 가거나 이상한 곳을 발견하면, 이상한 점을 밝히고, 방증을 찾아서 합리적으로 바로 잡는, 즉 원저자의 의도를 복원하는 연구 영역이다. 문제는 이상한 곳을 발견하기 위하여도 높은 수준의 학문을 요구하지만, 합리적으로 바로 잡기 위하여 제시하여야 할 방증을 고문헌의 어디에서 찾아낼 것인가? 따라서 수많은 고문헌을 독파해야 할 정도로 해박하다 해박한 학문 수준을 요구한다. 이를 위하여는 底本·補本·注疏本·古注·類書·關係書 등을 참고함으로써 착수한다.<sup>5)</sup> 이러한 연구는 서적 문화의 역사도 유구하여 增·刪·改·竊 등의 현상이 많았던 중국의 전적발달사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판본학은 현존 상태의 물리적 요소에 근거하여 생산 시기와 방법 등을 연구하는 영역이다. 물리적 형태에 근거하므로, 이론적으로만 연구하여서는 완전할 수 없고, 수많은 전적을 목도하면서 감식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반면에 이론적 배경이 없더라도 수많은 전적을 목도하면 감식 능력이 형성되면서 대가로 성장할 수 있다. 이는 고서점 운영자 중에 판본학적 이론을 구축한 대가가 적지 않은 점에서 알 수 있다.<sup>6)</sup> 그래서 중국의 문헌학자인 劉國鈞은 판본학을 “書皮之學”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한국은 역사상 국정운영은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적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이용하였다. 그러나 서적을 이용하는 계층은 얇았다. 그 결과 한국은 서적의 역사·종류·수량 등에서 교감학과 목록학이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에 비하여 필요한 서적의 종류는 중국과 비슷하였다. 목판인쇄<sup>7)</sup>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후, 비등하게 발달하였다. 한국의 서적 환경에 적합한 활자, 특히 금속활자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 활자연구에 치중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한국의 서지학은 판본학 중심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양상은 일산의 연구를 통하여도 파악이 가능하다.

4) 千惠鳳(1980), 5.

5) 王叔岷(1995).

6) 일례로 이미 작고하신 통문관의 이경로님을 들 수 있다. 중국의 경우 四川省 成都市의 고서점 陶書齋의 주인 蔣德字님도 좋은 사례이다.

7) 용어의 정립이 필요하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목판인쇄’는 목판을 조각하여 이루어지는 인쇄를 의미하므로, ‘雕板印刷’가 정확한 표현이다. 또는 ‘雕板’의 결과 생산된 목판을 ‘册板’이라 하므로 ‘册板印刷’도 가능하다.

## 2.2.2 韓國 書誌學徒의 特徵과 課題

필자는 대학 졸업 후, 국립대만대학에 유학하였다. 대학에 재직 중에는 짜투리 시간이 아닌 인생의 한 토막씩을 잘라서 미국·중국·일본을 방문하여 세계적 석학을 찾아서 사사받았다. 이후 동·서양 서지학의 연구 내용과 경향의 흐름에 대하여 꾸준히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자연히 한국 서지학과 서지학도의 특징이 눈에 들어왔다. 함께 분발하자는 충정으로 몇 자 부연한다.

### 2.2.2.1 特徵

한국 서지학의 선학들은 대체로 역사학으로 시작하여 서지학을 개척하였다. 이는 서지학이 역사학의 기초 학문이라는 점에서 순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 이만큼의 서지학 영역을 구축한 공로는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선학이라 할 수 있는 분이 겨우 3~4인에 불과하였다. 지금의 서지학도가 이들로부터 교육받고 성장한 결과, 그 스승의 연구 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학의 언급 한 마디가 연구의 가이드라인이 되어 연구 주제·연구 방법·연구 시각 등 연구 관념에서 그 선을 감히 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바로 일산의 서지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산의 틀에 살 좀 붙이는 정도라면 지나친 혹평일까? 일산의 서지학적 안목이 얼마나 높았으며, 서지학 연구가 후학에게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일산이 서지학의 터를 닦아 놓은 것이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이같은 일산의 위상은 반대로 오늘날의 서지학도가 스승의 범주를 초월하여 발전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어느 경우는 연구 자료, 연구 과정의 전개, 심지어 결론에 이르기까지 스승의 관박이가 되어 누구의 연구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이기도 하였다. 한마디로 서지학 연구를 위한 시야가 너무나도 좁다. 그만큼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다.

### 2.2.2.2 課題

한국의 서지학도가 개척할 수 있는 영역은 많다.

① 판본 연구의 경우, 예를 들어 ‘새로 발견된 모모 판본 연구’처럼 대단한 발견인 듯 포장하지만, 이는 연구라기보다는 선학의 관념을 넘지 못하는 자료 소개 수준이다. 초창기 연구 자료가 부족하던 시절에는 이러한 판본의 발굴도 연구 활동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선학들이 하지 못했던 연구 영역을 개척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책지의 섬유 분석, 목즙의 성분 분석 등 판본학적 연구 요소를 제시하여 실물을 보지 않더라도 해당 판본을 연구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진정한 연구라 할 수 있다.

② 활자 연구는 한국이 최고라 하여 외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선학의 연구가 다가 아니다. 문화사적 연구는 선학에 의하여 대부분 정리되었다면, 이제는 기술사 연구 등 그 밖의 영역으로 시야를 넓혀야 할 것이다. 서양의 서지학자들도 지금은 구텐베르그가 금속활자를 발명하였다고 하지 않고, 고려인을 인정한다. 그러나 인쇄 기술적인 측면은 자기들이 앞섰다는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서양의 연구 경향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학을 답습하는 것은 발전이 아니다. 특히 교감학과 목록학이 정신적 연구임에 비하여 판본학은 물질적 요소이다. 물질적 요소의 연구는 문헌 연구만으로는 연구자 스스로도 자신의 결론이 얼마나 정확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실험으로 증명하여야 문헌 연구가 옳았는지의 여부를 비로소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복원 연구 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필자가 귀국 후 기술사적 실험 연구에 착수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③ 목판본 연구에 관한 한, 중국을 배워야 한다. 중국의 판본학은 시종 목판본 중심이었다. 따라서 용어의 개념 정의에서부터 판본의 종류와 명칭, 저록 방식 등을 배우며 시야를 넓히는 연구 자세가 필요하다. 간단한 예로 복각과 번각<sup>8)</sup>·목판인쇄와 조판인쇄·떡밀랍과 인납<sup>9)</sup> 등이다.

④ 교감학과 목록학의 영역은 외국의 선진 연구를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 거기에는 입문을 위한 훈련,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전문 용어 등이 해당된다. 좋은 예로 고문헌의 校讀·발문 쓰기·장서가 연구·실물 교육·목록과 편목 등을 들 수 있다.

⑤ 일본은 중국 서지학을 도입한 점은 한국과 유사하다. 그러나 연구 경향은 중국이 관련 주제를 망라하여 연구하는 경향과는 대조적으로, 작은 주제를 깊이 분석하는 방향으로 발달하였다. 또한 일본만의 특징을 연구함으로써 중국의 틀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판본학적 요소에서 농후하게 나타난다. 한국의 서지학도가 배워야 할 점이다.

⑥ 서양 서지학도 연구하여야 한다. 문화적 배경의 차이만큼이나 연구 주제와 방법에서도 동양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 차이가 바로 한국 서지학이 선학의 관념을 벗어나서 발달할 수 있는 영역이다.

⑦ 한국은 아직 강대국이 아니다. 학문도 그러하다. 한글을 해독할 수 있는 외국의 학자는 손꼽을 정도다. 우리가 외국어를 습득하여야 그들과 소통할 수 있고 그들의 연구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그만큼 외국어 습득에 투자를 하여야 하는 형편이다. 이는 우리의 연구 결과를 외국어로 발표하지 않으면 국내용일 뿐, 외국에는 전파될 수 없는 우물 안 개구리 연구가 될 뿐임을 의미한다. 한국의 금속활자가 아무리 우수하다고 연구한들 그 내용을 외국어로 발표하지 않으면 외국의 학자는 알

8) 복각본의 개념에 대하여 저본으로 기존의 판본을 뒤집어 붙여서 판각하여 생산한 판본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판본이 인멸될 수밖에 없다. 흔한 판본이라면 복각하지 않았을 터이고, 귀중한 판본이라면 불가능까지는 아니라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복각이란 기존의 판본을 저본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기존의 판본을 세심하게 임모하여 저본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기존의 판본도 살릴 수 있고 저본과 특징이 같은 복각본의 생산도 가능하다. 번각본이란 기존의 판본을 비슷하게 모방한 저본으로 판각하여 생산한 판본이다. 따라서 대체로의 판식은 저본과 같지만, 자형이나 서체 등 세심한 요소는 물론 심지어 판의 크기조차도 다른 경우가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복제본은 번각이 아닌 복각본이다.

9) 떡밀랍은 이 물질의 형태를 보고 표현한 육두문자 식 용어다. 이의 기능을 고려하면 인쇄용 밀랍이므로 인납이 정확한 표현이다.

수가 없다. 지금까지 한국의 서지학도가 외국어로 발표한 글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선진 외국 서지학 연구 영역의 도입 및 개척이 필요하고, 우리의 연구를 외국에 발표하는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⑧ 서지학은 입문을 위하여 높은 수준의 학문적 배경을 필요로 한다. 특히 한문·일본어·중국어 등의 어학적 배경은 필수적이다. 역사학적 배경도 필요하다. 게다가 연구 대상이 고문헌인 까닭에 오늘날 젊은 학도로부터 그다지 환영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류이기에 이 학문을 이어갈 후배 양성에 노력을 배가하여야 한다. 후배들의 연구를 보면 성에 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스승도 나를 키울 때 그러하셨겠구나를 생각하면 반성이 앞선다. 이를 거울삼아 후배들을 질타하기 보다는 보완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학문을 이어갈 자신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서지학은 꾸준히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 3. 印刷技術의 重要性和 種類

#### 3.1 印刷技術의 重要性

##### 3.1.1 印刷術 發明의 前提條件과 그 時期

영국의 철학자 Francis Bacon(1561-1626)은 인류의 문명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4대 발명으로 지남침·화약·제지술·인쇄술<sup>10)</sup> 등을 들었다. 영국의 사학자 Arnold Toynbee(1889-1975)는 이 4대 발명이 모두 중국인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였다.

발명은 기존의 理念에 새로운 方法을 결합하여 탄생한다. 서양의 발명은 생활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끝에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어서 누가 언제 무엇을 발명하였는지가 비교적 분명하다. 중국의 발명은 자연에 순응하며 생활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먼 훗날에야 비로소 위대한 발명이었음을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 발명의 主體·時期·場所를 규명하기 위하여는 발명의 전제들을 소급하여 추론하여야 한다.

목판인쇄술의 발명도 예외는 아니다. 발명의 전제가 되는 ① 목즙의 사용, ② 제지술, ③ 탁인, ④ 인장, ⑤ 불인의 유행, ⑥ 부적의 사용, ⑦ 사회적 수요, 그리고 ⑧ 현존 초기 인쇄물 등에 근거하여 서기 700년경에 발명되었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인쇄술 발명의 배경을 비단 가공과 제지술에서 찾기도 하여, 비단 - 제지술 - 목판인쇄술 - 활자인쇄술을 연속적인 발명으로 보기도 한다.

10) 인쇄의 개념에 대하여 동양은 목판인쇄와 활자인쇄를 모두 인쇄로 간주하지만, 서양은 활자인쇄만을 인쇄로 간주한다. 서양도 60여년 정도 목판으로 인쇄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활자인쇄술은 목판 상의 문자를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없는 死字인쇄라는 점을 개량하기 위하여 발명되었다. 이는 宋代의 畢昇에 의하여 膠泥活字로 慶曆年間(1041-1048)에 발명되었다.<sup>11)</sup> 목활자는 1194-1205년間に 『德行集』을 인출한 소련의 黑水城에서 출토된 西夏文 목활자<sup>12)</sup>와 元代의 王禎이 大德 2년(1298)에 『旌德縣志』를 인출한 것이 있다.<sup>13)</sup> 금속활자는 고려인에 의하여 발명된 후, 1377년에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을 인출하였다.<sup>14)</sup> 최근에는 고려시대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남명천화상송증도가』를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활자가 발굴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 3.1.2 印刷技術의 重要性

인쇄술은 다량의 복본을 신속하게 생산하는 기술이다. 인쇄술이 보급되면서 대량 정보의 유통으로 시민 의식의 민주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지식 정보의 보존도 용이해졌다.

1998년 Time 사의 『Life』는 지난 1000년 동안 인류의 기술혁명 100가지 중, 첫 번째로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이용하여 성경을 인쇄한 사실을 꼽았다.<sup>15)</sup> 이유는 정보의 대량 생산과 유통을 통하여 유럽을 봉건사회에서 자본사회로 변화시키고,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의 빌미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인쇄 관련 문헌 기록에서 ‘以壽其傳’<sup>16)</sup>을 언급하면서 정보자료의 보존 기능을 서술하고 있다. 인쇄에 의한 대량생산은 보존 용도로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인쇄술의 대량생산은 書肆의 탄생을 촉진하였고, 저렴한 가격 등 인쇄술의 중요성은 다양하다.

## 3.2 古代의 書籍(板本) 生産 方法

### 3.2.1 筆寫 = 筆寫本

필사용구로 한 글자씩 필사하여 완성한다. 성책하면 판본은 성립되지만, 생산 방법은 인쇄의 범주가 아니다.

11) 沈括, 『夢溪筆談』 卷18, 技藝, 板印書籍條.

12) 史金波, 雅森吾守爾, 『中國活字印刷術的發明和早期傳播』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0), 42-43.

13) 王禎, 『農書』 卷22, 造活字印書法.

14) 현존 最古의 금속활자본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MSS극동부, 109) 권말 간기: 宣光七(1377)年丁巳七月 日 淸州牧外興德寺鑄字印施.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은 UNESCO 에 의하여 2001년 9월 4일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15) Robert Friedman, 『The Life Millennium: The 100 Most Important Events and People of the Past 1,000 Years』 (New York: LIFE BOOKS Time Inc, 1998), 166.

16) 『南明泉和尚頌證道歌』(복각본), 권말 수록 발문 “中書令晉陽公崔怡謹誌”.

### 3.2.2 拓印 = 拓印本

금석 문자로부터 탁인한 것을 장정하여 완성한다. 하나의 모체에서 복본을 생산하는 점에서는 인쇄와 같으나, 黑底白文인 陰刻正體字가 白底黑文인 陽刻反體字와 기술적 원리가 상반된 점에서 인쇄의 전제조건이다. 성책하면 판본은 성립되지만, 생산 방법은 인쇄의 범주가 아니다.

### 3.2.3 印刷 = 印刷本

#### (1) 木板印刷 = 木板本

목판에 문자를 양각反體字로 조각하여 인출한 서적이다. 책의 내용을 판각한 목판을 冊板이라고 한다.

#### (2) 活字印刷 = 活字本

각각의 문자를 독립적으로 양각反體字로 제작하여 원고의 내용대로 배열하여 인출한 서적이다.

#### (3) 근대 인쇄

석판인쇄 · 평판인쇄 · 요판인쇄 · 첩판인쇄 · 신식 연활자인쇄 · 컴퓨터인쇄 등이 있다.

## 3.3 古印刷의 種類와 長短點

### 3.3.1 木板印刷

#### 3.3.1.1 木板印刷의 過程

① 원고 완성(저자 또는 편자), ② 판하본 정서(서사가), ③ 목재 연판과정(목공), ④ 판재 조성(목공), ⑤ 판하본을 판재에 뒤집어 붙인 후(각수), ⑥ 문자를 양각반체자로 판각(각수), ⑦ 초벌 판각 후 교정지 인출(인출장), ⑧ 교정(감인판), ⑨ 교정 내용을 책판에 반영(각수), ⑩ 정식으로 서엽 인출(인출장), ⑪ 묶어서 장정하여 서적 완성(책장).

이 방법은 서사가가 판하본을 정서하므로 문자가 90도 눕거나 180도 뒤집어지는 실수가 없다. 예외적으로 교정 과정에서 각수의 실수로 뒤집어진 문자가 있기는 하다.<sup>17)</sup>

17) 『中庸章句大全』 朝鮮戊子新刊嶺營藏板後刷本, 제114葉下.

3.3.1.2 木板印刷의 種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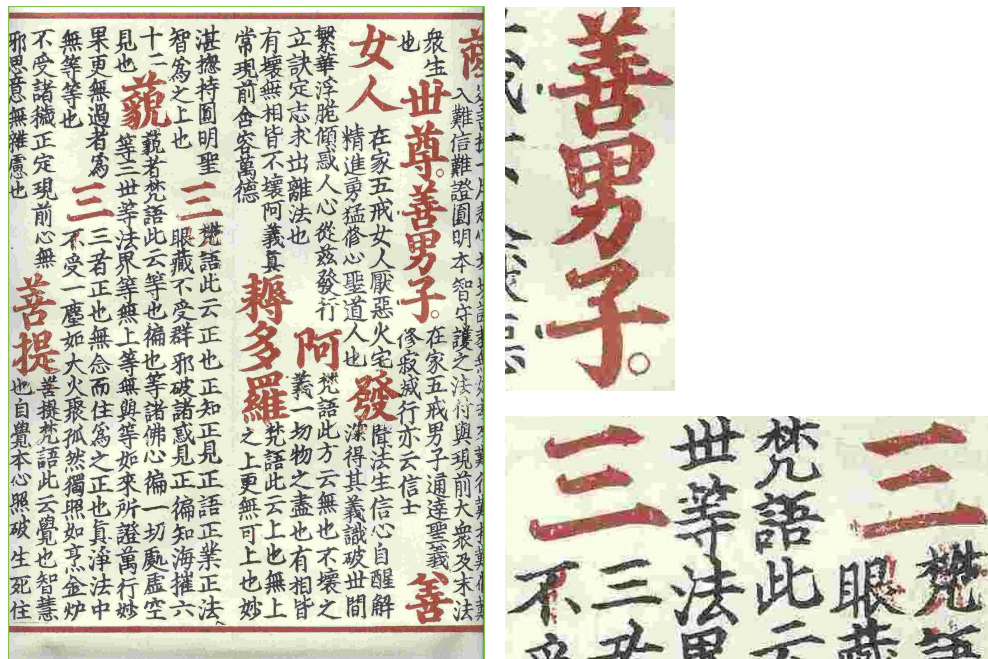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한 듯하나, 실은 다양하다.

(1) 1판 1색 인쇄

하나의 목판에 한 가지 먹색으로 인쇄한다. 청색이나 주색을 사용하기도 한다. 한국은 서적의 標題 인쇄는 간혹 남색을 쓰기도 하였으나, 본문 인쇄는 시종 오로지 흑색만을 사용하였다. 다만 필사본이나 화폐, 부적으로는 채색 먹을 사용한 적이 있다.

(2) 1판 다색 인쇄(套板印刷 = 彩色인쇄)

하나의 목판에 두 가지 이상의 먹색이 반영되어 있다. 이를 套板印刷(套印)이라고 하는데, 다색 인쇄의 초기 방식이다. 최초의 1판 다색 인쇄본은 元至正元(1341)年資福寺刻朱墨套印本「金剛經」(中華民國國家圖書館所藏)이다. 주색이나 흑색으로 인쇄되어야 할 문자의 필획 부분이 흑색이나 주색으로 인쇄된 흔적을 볼 수 있다(<서영 1> 참조).



<서영 1> 元至正元(1341)年資福寺刻朱墨套印本「金剛經」(제15-16葉)

(3) 다관 다색 인쇄(套板印刷 = 彩色인쇄)

한 엽을 다른 먹색의 목판 여러 장으로 인출한다. 발달된 套板印刷 방식이다. 朱墨2色套印本이 가장 많고, 대표적인 예로 淸康熙49(1710)年武英殿刻朱墨黃綠藍五色套印本 「古文淵鑿」이 있다 (<서영 2> 참조). 중국과 일본의 판본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서영 2> 淸康熙49(1710)年武英殿刻朱墨黃綠藍五色套印本「古文淵鑿」(正集卷3, 제10下-11上葉)

(4) 다관 다색 濃淡인쇄(餛板印刷 = 彩色濃淡인쇄)

한 엽을 다른 먹색의 목판 여러 장으로 인출하는 점은 다관 다색 인쇄와 같다. 차이점은 인출할 비교적 넓은 부분에 같은 색상의 濃淡이 다른 먹으로 인출함으로써 농담을 표현하는 인쇄기법이다.<sup>18)</sup> 이를 餛板印刷(餛印)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 明崇禎4(1631)年餛板刻本 「十竹齋書畫譜」·「芥子園畫傳」 등이 있다. 일본은 중국본을 복각하였다.<sup>19)</sup> 「十竹齋書畫譜」의 書畫卷上, 제3엽의 꽃잎에서 색상은 같으나 농담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서영 3-1> 참조).

18) 餛板印刷의 인출 기법에 관한 전통적인 학설은 농담을 표현할 부분을 세밀하게 분할 조각하여 각각의 조각에 농담이 다른 먹으로 인출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필자의 실험 결과 분할한 조각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이어서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서영 3-2> 참조). 농담의 표현은 채색묵의 도포 기법에 의한 것이었다. 이는 현재 北京의 榮寶齋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 (明)胡正言, 『十竹齋書畫譜』 16권 16책, 日本明治11(1878)年5月22日大阪府前川善兵衛覆刻中國嘉慶22(1817)年餛板刻本 ; (淸)王槩 등저, 『芥子園畫傳』, 日本嘉永3(1850)年彦屋孫兵衛翻刻中國餛板刻本.



<서영 3-1> 日本明治11(1878)年大阪府前川善兵衛覆刻中國嘉慶22(1817)年靛板刻本  
「十竹齋書畫譜」(書畫卷上, 제3葉)



<서영 3-2> 조형진 靛板印刷의 1991년 실험작

(5) 무색 요철 인쇄(拱花)

종이에 요철만 반영하는 인쇄기법이다. 이를 拱花라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 明天啓年間(1621-1627) 吳發祥本 『蘿軒變古箋譜』가 있다(<서영 4> 참조). 대체로 다색 인쇄나 다색 농담 인쇄와 함께 사용한다(<서영 5> 참조).



<서영 4> 北京朵雲軒木版水印複製明天啓年間(1621-1627)吳發祥本 『蘿軒變古箋譜』(魚譜)



<서영 5> 北京朵雲軒木版水印複製明天啓年間(1621-1627)吳發祥本 『蘿軒變古箋譜』  
(3마리 새의 몸통을 拱花 기법으로 찍었다)

### 3.3.2 活字印刷

#### 3.3.2.1 活字와 活字印刷術의 定義(4要素)<sup>20)</sup>

- (1) 활자의 제작: 매 문자를 **납개로 · 복수로** 갖추어야 한다.
- (2) 인판의 제작: **한 판의 활자를 조립**하되 자면을 고르게, 견고하게 한다. 활자인쇄 과정에서 가장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한다.
- (3) 인출: 墨汁으로 **쇄출**한다. 목판인쇄와 별 차이가 없다.
- (4) 재사용: 해판 후 **재사용**할 수 있어야 死字가 아닌 活字이다.

이상 네 단계를 갖추어야 활자인쇄로 성립할 수 있다.

#### 3.3.2.2 材料에 따른 活字의 種類

##### (1) 교니활자

점토로 제작한 활자다. 膠泥는 아교를 섞은 점토가 아니고, 점성을 가진 점토다. 초벌구이한 도활자와 유약을 발라서 재벌구이 한 자활자가 있다. 중국 清代 康熙 59년(1718) 山東 泰安 徐志定の 자활자가 그 예다.<sup>21)</sup>

##### (2) 목활자

대추나무 · 배나무 · 산벚나무 · 박달나무 등으로 제작한다. 드물게 대나무와 바가지를 이용한 것이 있다.

##### (3) 금속활자

銅 · 鉛 · 錫 · 鐵 등으로 제작한다. 동양은 주로 合金銅을, 서양은 合金鉛을 이용하였다.

##### (4) 고무활자

고무로 제작한 활자다. 근대 이후 드물게 사용하였다.

#### 3.3.2.3 活字의 製作方法

##### (1) 교니활자

조각과 주조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각은 점토판이 반 정도 건조되었을 때, 자본을 뒤집어 붙여 양각하고 완전히 건조시킨 후, 불에 구워서 완성한다. 중국 清代 道光 9년(1829) 吳郡(蘇州) 李璠의

20) 沈括, 『夢溪筆談』 卷18, 技藝, 板印書籍條.

21) 曹炯鎮, “清代 前期의 活字印刷,”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9(1995. 12), 351-352.

교니활자가 있다.<sup>22)</sup> 주조는 陰刻正體字의 점토 주형에 점토로 찍어내어 완성한다. 중국 清代 道光 24년(1844) 安徽省 涇縣 翟金生의 泥活字가 있다.<sup>23)</sup>

#### (2) 목활자

조각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목판에 자본을 뒤집어 붙인 후, 양각한 다음 한 자씩 떼어내어 완성한다. 대부분의 목활자가 이에 해당한다. 또는 목재를 육면체로 가공한 후, 하나씩 자본을 붙여서 양각하기도 한다. 중국 清代 武英殿의 聚珍字가 이 예다.<sup>24)</sup>

#### (3) 금속활자

주조와 조각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주조는 밀랍주조법(lost wax casting) · 주물사주조법(green sand casting) · 단면주조법(open mold casting) 등이 사용되었다. 대체로 양각반체자의 어미자로 주형을 만들고, 금속용액을 주입하여 완성한다. 한국의 금속활자가 이에 해당한다. 조각은 금속을 육면체로 제작하여 자본을 뒤집어 붙인 후, 양각하여 완성한다. 중국 明代 無錫 華氏 일가의 錫活字<sup>25)</sup>와 清代 康熙年間(1662-1722) 內府의 『古今圖書集成』 銅活字가 그 예다.<sup>26)</sup>

#### (4) 고무활자

조각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고무판에 자본을 뒤집어 붙인 후, 양각하여 완성한다.

### 3.3.2.4 活字와 活字印刷術의 發明에 대한 定義

활자는 제작원리의 독창성에 따라, 활자인쇄술은 인쇄 기술 과정상의 독창성에 따라 발명을 판단할 수 있다. 활자와 활자인쇄술의 발명을 구분하는 이유는, 활자의 제작 원리와 활자인쇄술의 원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宋代의 畢昇이 활자인쇄술을 발명할 때 사용한 재료는 교니로써 조각의 방법으로 제작하였다. 이는 완전한 제작원리의 독창이므로 발명이다. 이 교니활자를 이용한 인쇄술은 네 단계라는 인쇄원리의 독창이므로 발명이다.

목활자의 제작방법은 조각이다. 새로운 원리가 없으므로 발명이 아니다. 목활자인쇄술은 교니활자인쇄술과 같은 원리이므로 발명이 아니다.

고려 金屬活字의 제작방법은 鑄造다. 이 제작원리는 교니활자나 목활자와 완전히 다르므로 발명

22) 曹炯鎭, “清代 後期の 活字印刷,” 『계간 서지학보』 19(1997. 1), 100-102.

23) 曹炯鎭(1997), 103-106.

24) 金簡, 『武英殿聚珍版程式』, 紀昀等總纂, 『影印文淵閣四庫全書』 (臺北: 商務印書館, 1983), 제673책.

25) 曹炯鎭, “明代 無錫 華·安 兩氏 家門의 活字印刷,” 『계간 서지학보』 15(1995. 3), 100-107.

26) 曹炯鎭(1995. 12), 346-349.

이다. 금속활자인쇄술은 교니활자인쇄술과 같은 원리이므로 개량으로 간주할 수 있다.<sup>27)</sup>

### 3.3.3 古印刷의 長短點

#### 3.3.3.1 木板印刷의 長短點

- 장점: 목판인쇄는 손으로 필사하는 것보다 신속하고, 冊板을 보존하면서 수시로 인쇄에 제공하고 수요량만큼 인쇄할 수 있다. 긴 안목으로 볼 때 목판인쇄의 원가는 활자판보다 싸고 쉽게 인출해 낼 수 있다. 인출한 판면의 묵색 농담이 균일하여 안정감이 있다.
- 단점: 목재의 鍊板過程을 거쳐서<sup>28)</sup> 목판으로 켜야 한다. 板下本<sup>29)</sup> 필사 - 校勘 - 수정 - 목판 조각 - 교정지 인쇄 - 교감 후에 인쇄에 부친다.<sup>30)</sup> 목판의 교정작업은 상당한 노력을 초래한다. 서적 하나를 조각하려면 여러 해의 노력·인력·물력 등 소요비용이 크다. 한 질의 책판은 한 종류의 서적 밖에 인쇄할 수 없다. 책판의 보존 공간을 필요로 하고 또한 훼손되기 쉽다. 인쇄 수량이 적거나 다시 인쇄할 필요가 없으면 책판은 무용지물이 된다.

그러므로 수요가 꾸준히 소량씩 필요한 서적은 목판인쇄의 방법이 적합하다.

#### 3.3.3.2 活字印刷의 長短點

- 장점: 서적의 종류가 다양하거나 거질이라면 활자를 반복 사용하여 인쇄할 수 있다. 수시로 인쇄하고 해판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며 속도도 빠르다.<sup>31)</sup> 수시로 교정할 수 있고, 남에게 빌려줄 수 있는 점 등도 우수성이다.

27) 금속활자인쇄술의 발명 여부에 관하여, 국내의 일부 학자는 활자의 제작 목적이 서적 인쇄이므로 활자와 인쇄술을 동일시하여 금속활자와 금속활자인쇄술을 모두 발명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금속활자와 금속활자인쇄술의 기술적 원리와 이념을 살피고자 한다. 금속활자는 주조라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제작하였으므로 발명임에는 이문의 여지가 없다. 금속활자인쇄술은 활자 제작 - 조판 - 인출 - 해판 후 재사용이라는 기술적 과정은 교니활자나 목활자인쇄술과 비교할 때 새로운 이념의 도입은 없다. 다만 조판 방법·목즙 등 부분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발전은 개량이라고 판단한다.

28) 徐有渠, 『林園十六志』卷 105, 怡雲志, 卷第 7, 圖書藏訪(下), 鈐印, 鏤版法(金華耕讀記), 葉 1上.

29) 覆刻本의 경우는 판하본을 새로이 필사하지 않고 기존의 刊本으로 대신한다.

30) 盧前, “書林別話,” 喬衍瑄·張錦郎 공편, 『圖書印刷發展史論文集續編』(臺北: 文史哲出版社, 1979), 137-142.

31) 1. 沈括 지, 胡道靜 교증, 『夢溪筆談校證』板印書籍條의 “만약 2-3부만 인쇄한다면 간단하지 않으나 수십백천 부를 인쇄한다면 지극히 신속하다(若止印三二本, 未爲簡易, 若印數千百千本, 則極爲神速.)”는 바로 이 이치를 설명한 것이다.

2. 金簡, 『武英殿聚珍版程式』奏議, 乾隆 38年 10月 28日 條 및 41年 12月 25日 條.

3. 錢存訓, “論明代銅活字板問題,” 喬衍瑄·張錦郎 공편, 『圖書印刷發展史論文集』, 331쪽에서 明代의 銅活字로 인쇄한 서적은 대부분이 類書·文集·叢書類 등 대형 전적이라고 하였다.

- 단점: 활자인쇄는 고대의 미숙한 조판기술로는 많이 인쇄할 수 없다.<sup>32)</sup> 조판할 때 준비하지 못한 활자는 즉석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인쇄 후 해판하므로 다시 인쇄할 때에는 다시 조판하여야 한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인쇄하면 소진까지 비용의 압박을 받는다. 인출한 판면의 묵색 농담이 균일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서적의 종류가 많거나 巨帙이거나 대량의 복본을 급히 필요로 할 때에는 活字印刷의 방법이 적합하다.

## 4. 韓國의 古印刷와 그 位置

### 4.1 韓國의 木板印刷

#### 4.1.1 新羅時代

한국의 목판인쇄는 중국에서 발명된 이후, 당시 신라의 유학생, 범승에 의하여 수입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 시기는 현존 초기 인쇄물을 살펴보면 중국과 그다지 차이 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신라는 불교 국가로서 목판인쇄물 대부분이 불교 서적이었다. 이는 현존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을 통하여도 알 수 있다. 말기에는 민간에서도 시문집<sup>33)</sup> 등을 인쇄하였다.

#### 4.1.2 高麗時代

##### 4.1.2.1 政府機關

중앙정부는 현종 2년(1011)에서 선종 4년(1087)까지 77년에 걸쳐서 『초조대장경』 6,000권을 판각하였다.<sup>34)</sup>

대각국사 義天은 선종 8년(1091)에서肅宗 6년(1101)까지 11년에 걸쳐서 『속장경』 4,000권을 판각하였다.<sup>35)</sup>

고종 19년(1232) 몽고병이 침입하자 고종 23년(1236)에서 고종 38년(1251)까지 『재조대장경』을 판각하였다.<sup>36)</sup>

32) 葉德輝, 『書林清話』(臺北: 世界書局, 1974), 卷 8, 明錫山華氏活字板, 205.

33)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서울: 탐구당, 1974), 57-72.

34) 千惠鳳(1980), 57-72.

35) 千惠鳳(1980), 90-96.

비서성(비각)은 정종 11년(1045)에 『禮記正義』 70권과 『毛詩正義』 40권을 판각하였으니,<sup>37)</sup> 이것이 유가 경전 판각의 효시다.

지방정부는 광종(950-975)의 과거제도 실시와 성종(982-997)의 권학정책, 그리고 정종 이후 사회가 안정되면서 서적 판각을 시작하였다. 동경(경주)·충주목·안서도호부(해주)·지경산부(성주)·지남원부(남원) 등<sup>38)</sup>의 44종.<sup>39)</sup>

중앙정부는 宋·元本을 입수하면 교감 후, 지방정부에 복각하도록 하여 책판을 보존, 인출하였다.

#### 4.1.2.2 寺刹 및 個人<sup>40)</sup>

사찰의 서적간행은 국가의 승불정책과 풍부한 사찰경제에 의하여 왕성하였다. 서적 간행 사찰이 35곳, 간행년과 간행지를 알 수 있는 서적이 50여 종, 알 수 없는 것도 90여 종.

개인판은 고려 말기에 출현한다. 주로 문집과 족보류다. 간행년을 알 수 있는 13종 외에도 51종 있다.

### 4.1.3 朝鮮時代<sup>41)</sup>

#### 4.1.3.1 政府機關

중앙정부는 유교 경전인 경사류와 의학류를 주로 간행하였다. 인해본도 간행하였다. 간경도감은 한역불경을 30여 종, 폐쇄 후에도 大妃들에 의하여 30여 종의 불경이 간행되었다. 奉謨堂·觀象監·司譯院·惠民署·訓練都監·軍器寺·壯勇營·宗簿寺·內府·掌樂院 등도 간행.

조선조의 출판정책은 태종 3년(1403)에 설치한 주자소에서 활자로 인쇄하면, 지방정부는 이를 복각하였다. 또는 중앙정부가 명본을 입수하면 지방정부에게 복각하여 올리게 하였다. 경상도·전라도·강원도가 조선 전기에 간행한 서적은 980여 종. 지방정부판은 경사류 중심의 교육용·문집류·政書類가 대부분이다.

인진왜란 이후 간행한 서적은 500여 종에 이를 만큼 왕성.

36) 鄭麟趾, 『高麗史』 卷24, 世家卷第24, 高宗3, 辛亥38年9月.

37) 鄭麟趾, 『高麗史』 卷6, 世家卷第6, 靖宗, 乙酉11年4月己酉條.

38) 1. 鄭麟趾, 『高麗史』 卷6, 世家卷第6, 靖宗, 壬午8年2月己亥條.

2. 鄭麟趾, 『高麗史』 卷8, 世家卷第8, 文宗, 戊戌12年9月己巳條; 文宗 己亥13年2月甲戌條; 文宗 己亥13年4月庚辰條.

39) 千惠鳳(1980), 152.

40) 曹炯鎭, “韓國朝鮮朝의 雕板印刷概述,” 淡江大學中文系漢語文化暨文獻資源研究所主編, 『昌彼得教授八秩晉五壽慶論文集』 (臺北: 學生書局, 2005), 221-222.

41) 曹炯鎭(2005), 222-228.

#### 4.1.3.2 寺刹 및 個人

판각 자원과 각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도에 의한 재원도 확보하고 있었다. 조선 전기에 120여 사찰이 280여 종을, 후기에는 170여 사찰이 510여 종의 불경을 간행. 경사자집류도 적지 않아서, 경기·충청·전라·경상·평안 각도의 사찰이 간행한 서적이 140여 종.

개인판은 문집과 족보류가 대부분인데 서품이 낮은 편으로 90여 종이 있다. 조선 후기에는 전라·경상·평안 3도에서 19종. 이밖의 개인판도 84종.

#### 4.1.3.3 書院·祠堂·書坊

서원은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한 서적은 5종에 불과하다. 임진왜란 이후 서원의 활동이 활발하여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73개 서원에서 167종의 서적을 간행. 교육기관인 까닭에 선현과 서원 관련 인사의 문집과 저작이 대부분이다.

사궁은 조선조 후기에 비로소 개창되었다. 간행한 서적은 선현의 文集·遺事·遺蹟 등으로, 전라·경상·황해·함경 4도에서 25종.

書坊의 간행은 17세기 이후에 나타나며, 방각본의 특징을 갖춘 것은 19세기에 나타난다. 판각술이나 형태 등도 조잡하고 소형 수진본이 대부분이다. 110여 종, 한글소설·아동교과서·운서·예서·의서·농서 등이다.

## 4.2 韓國의 活字印刷<sup>42)</sup>

### 4.2.1 高麗時代

한국의 활자 인쇄는 수입이후 주전술과 금속주조 기술을 응용하여 동활자를 주조하였다. 기원 년대는 1232년 강화도 천도 이전으로 추론된다. 증거로는 『新印詳定禮文』의 발문 기록과 증도가 활자, “宣光7(1377)年 … 鑄字印施” 간기의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고려의 금속활자본은 정부의 『新印詳定禮文』·『南明泉和尚頌證道歌』와 사찰의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慈悲道場懺法集解』 등이 알려져 있다.

42) 曹炯鎭, 『中韓兩國古活字印刷技術之比較研究』(臺北: 學海出版社, 1985), 106-173.

#### 4.2.2. 朝鮮時代

조선시대 금속활자 42종·목활자 26종·표활자 1종·도활자 1종 등이 있다. 정부 조성은 63종, 개인 조성은 금속활자 3종·목활자 2종·표활자 1종·도활자 1종 등. 즉 정부 조성 금속활자가 주류를 이루고, 목활자는 금속활자를 보완하였다. 개인은 주로 목활자를 사용하였는데, 16세기부터는 금속활자본을 저본으로 목활자를 조성하였다. 활자의 수량은 수만~32만개의 경우까지 있다.

활자 발달의 배경은 왕권 강화를 위하여 각종 유가 경전 등을 신속히 인출하여야 했다. 이같은 정치 사회적 환경에서 활자인쇄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인쇄기술은 세종조의 갑인자에서 최고 경지에 도달한 후, 보주와 목활자로 보완하는 등 서적의 품질도 떨어졌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목활자를 전용하면서 기술도 서품도 열악한 수준이었다. 현종·숙종조에 이르러 주자인쇄가 회복되었다. 영조·정조조에는 활자 인쇄 기술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개인이나 방각 목활자본도 나타났다. 19세기 서양의 신식 연활자 수입 이후 전통적인 활자인쇄는 쇠퇴하였다.

### 4.3 韓國의 近代印刷<sup>43)</sup>

#### 4.3.1 예수교 聖經活字

천주교의 프랑스인 선교사가 1880년 일본 橫濱에서 한글 연활자를 주조, 2종의 서적 간행. 1883년 長崎로 이송되어 성경류를 간행, 1886년 국내로 수입되어 여러 성서를 간행.

개신교의 영국인 선교사는 1882년부터 중국 만주에서 한글 성경을 간행하여 국내로 보급. 1884년에는 미국인 선교사가 橫濱에서 한글 성경을 간행하여 이듬해 국내로 수입.

#### 4.3.2 博文局 鉛活字

조선 정부는 1883년 박문국을 신설하고 연활자 인쇄 설비를 수입하여 『한성순보』를 간행하였다가 곧 중단, 1885년에 『한성주보』를 속간하였다. 광인공사는 1884년부터 연활자로 여러 서적을 간행하였다.

이 연활자는 관부의 신보·법규장정·계몽서·사가문집 등 소형 활자를 필요로 하는 서적 간행에 사용되다가, 1897년부터 각종 인쇄에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43) 金斗鍾(1974), 462-466.

## 4.4 韓國 古印刷의 位置

### 4.4.1 木板印刷와 木板本

‘목판인쇄’ 하면 중국이다. 한국은 양적인 면에서 비교가 되지 못할 뿐, 목판인쇄의 개시 시기나 기술적 수준 등은 중국과 비등하다.

초기 인쇄 실물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권자본으로 완전한 형태다. 중국은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 일본은 부적 형태의 百萬塔多羅尼가 있다. 이러한 연유로 중국은 간행 장소에, 일본은 간행 시기에, 한국은 간행 시기와 장소 모두에 관심이 있다.<sup>44)</sup> 그러나 1000여 년 이전의 유물이어서 고증이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영광이 아니겠는가!

『팔만대장경』의 경판은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대장경』은 宋代 開寶年間(968-976)에 처음 집대성되었다. 불경의 정리·보존에 공헌은 크다 하겠다. 그러나 경판 자체는 『팔만대장경』이 세계에서 유일하다. 어찌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 4.4.2 活字印刷와 活字本

활자인쇄 특히 ‘금속활자’ 하면 단연 한국이다. 고려시대에 금속활자를 발명함으로써 시작하였다. 독일의 구텐베르크보다 200년 이상 앞선 것으로, 서양도 인정하고 있다. 중국은 활자인쇄술을 발명하였지만, 유행하지 못하였다. 일본은 임진왜란 때 약탈해 간 조선의 활자로 시작하였다. 한국은 더 나아가 목활자·도활자 등을 제작하여 응용하였다.

최근 고려시대의 『南明泉和尚頌證道歌』 금속활자가 발굴되었다.<sup>45)</sup> 진품은 발명작이 될 것이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권하 1책을 소장하고 있다. 2001년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宣光七(1377)年丁巳七月 日 淸州牧外興德寺鑄字印施”의 간기가 있다. 현존 最古의 금속활자본이다.

활자는 70여 종에 이르며, 수량도 320,000개까지 있다. 임진왜란 이후의 것은 보존되어 있는 것만도 65만여 개에 달한다.<sup>46)</sup> 인쇄 도구는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적지 않다.

외국 학자들은 한국의 활자인쇄를 가장 먼저 알고 싶어 한다. 다만 인쇄기술은 수동식을 벗어나지 못하여 구텐베르크의 반기계식에 다소 뒤진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한국의 고인쇄 역사는 세계 인쇄문화발달사 상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44) 曹炯鎭,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論爭을 통해 본 書誌學的의 研究方向,” 『국회도서관보』 35권 3호(1998. 6), 95-97.

45) 1. 남권희, 『직지보다 앞선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證道歌字』 (서울: 다보성고미술, 2010).

2. 남권희, 『세계 최초로 주조된 금속활자 증도가자와 고려시대 금속활자』 (서울: 다보성고미술, 2011).

46) 이재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활자에 대한 일고찰,” 『서지학연구』 29(2004. 12), 311-343.

이상 한국의 고인쇄와 그 기술에 관한 문화사적인 요소는 일산의 연구를 통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5. 一山 金斗鍾의 位相

일산은 간행 연대, 판본의 형태 및 자체, 주자본, 관·사판의 구분, 지질 및 제본 양식, 서와 발 등에 유의해 왔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는 『韓國古印刷技術史』로 출판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5.1 木板印刷文化史의 研究

삼국 및 신라통일시대의 불경 및 新羅詩의 인쇄, 신라의 석판 불경 및 금동판 탐지, 중국 판본의 수입, 고려 초기의 인쇄, 고려 중기의 대장경판 雕造, 고려 말기의 雕板術, 조선 전2기 인쇄술, 조선 전2·3기의 주자본의 복각판, 각도 소장 책판과 그 목록, 조선 전기와 후기의 관판과 사판 등으로 구분하여, 시대별 및 주제별로 분석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삼국과 신라통일시대의 것으로 백제의 울소간행설, 신라의 대장경판설 등 인쇄술 도입 초기의 불확실한 주장과 석각 『화엄경』·『법화경』·『금강경』과 금동판 구층탐지 등 인쇄술 이전의 전제조건 등도 서술하였다. 또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제 요소는 물론 신라시의 인쇄에 대하여도 연구하였다.

중국 판본의 수입에 대하여는 東晉 이후 唐代에 이르기까지 유교·불교·도교류와 의학서 및 기타 전문서 등을 비롯하여 五代와 北宋의 판본까지 망라하고 있다.

고려시대는 초기의 금판 『금강경』과 함께 『寶篋印陀羅尼經』 판각의 전말을 연구하였다. 중기에는 宋 및 거란 장경의 수입, 『초조대장경』·의천의 『속장경』·고종의 『재조대장경』 등의 조성을 연구하였다. 말기에는 대장경판의 보충과 중인, 宋·元계 판본과 고려의 독자적인 판본을 연구하였다. 또한 중·말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판본 및 사찰판과 사가판도 연구하였다.

조선시대의 목판인쇄에 대하여는 『四書五經』 및 『性理大典』의 판각, 해인사 대장경판의 중인을 연구하였고, 간경도감 간행 불전과 인수대비의 중간 불서를 목록으로까지 연구하였다. 또한 일본과 유구로 건너간 해인사 대장경본, 주자본의 복각본도 연구하였다. 각도 소장 책판과 그 목록, 조선 전기의 관판 서적 목록은 물론, 사판은 사찰·서원·사가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후기에는 서유구의 『누판고』와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판, 사판은 사찰·서원·사궁·사가·방각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신편제종교장총록』과 팔만대장경판의 『대장목록』도 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에는 서영을 첨부하여 독자의 이해를 배려하였다.

이 같은 일산의 연구는 앞에서 서술한 “韓國의 木板印刷”의 내용을 거의 망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2 活字印刷文化史의 研究

한국의 활자인쇄에 관하여 고려 중·말기의 활자인쇄술, 조선 전기의 인쇄술, 조선 전기의 목활자인본, 조선 후기의 인쇄술, 일본에 건너간 우리나라의 활자인쇄술, 근대식 연활자의 수입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고려 말기의 활자인쇄 사실을 기록한 문헌, 주자인쇄 정책,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조선시대는 초기 목활자인쇄, 계미자로 시작하는 조선의 금속활자와 목활자의 활자인쇄발달사(경자자·갑인자·신묘자·병진자·경오자·임신자·을해자·인경목활자·을유자·갑진자·계축자·성종실록자·병자자·기묘자·계유자·경진자·전2·3기의 목활자·선조실록자·훈련도갑자·광해군동활자·효종실록자·현종실록자·행서체목활자·3주갑인자·한구자·교서관인서체자·인서체목활자·교서관필서체자·정유자·임진자·정리자·생생자·취진자·전사자·후기의 각종 목활자·도활자·표활자 등)를 관통하여 인쇄문화사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활자에 관하여 이설이 있거나 동자이명의 활자에 대한 오해도 규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의 활자인쇄술도 빠뜨리지 않았다.

근대의 신식연활자는 예수교 성경활자와 박문국 연활자의 수입부터 정착과정을 연구하였다.

활자인쇄 연구에서도 서영을 첨부하여 독자의 이해를 배려하였다.

## 5.3 印刷技術史의 研究

인쇄기술에 대하여는 조선시대 주자소의 설치, 소실된 활자와 남은 활자 및 신주활자의 수량, 주자의 제작과정, 주금의 분석, 주자의 형태, 주자체의 변천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필요할 경우 도표를 부기하였다.

인쇄기술사 연구에서도 활자 실물 등의 서영을 첨부하여 독자의 이해를 배려하였다.

이같은 일산의 활자인쇄문화사와 인쇄기술사의 연구는 앞에서 서술한 “韓國의 活字印刷”와 “韓國의 近代印刷”의 내용을 거의 망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5.4 一山文庫의 構築

관본학은 이론만으로는 연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체득한 일산은 고서를 수집하면서 실물을 무수히 접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 국립중앙도서관이 고서를 적극적으로 수집,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서 개인문고를 설치하여 독지가로 하여금 기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 적이 있다. 이 때 일산은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고 귀중한 고서 1,135종 5,144책을 기증하여 개인문고 제1호로 일산문고가 되었다.<sup>47)</sup> 『일산문고목록』에는 일련번호·서명·책수·간년·특기사항 등만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고, 향후 정식으로 완전한 서지사항을 기록한 목록을 출판할 예정이었다. 이 목록은 통계 수치에 약간의 오류가 있고, 목판본을 활자본에 분류하는 등의 문제점은 있지만,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산문고는 크게 고려관계 서목, 임진왜란 이전의 활자본, 임진왜란 이전의 목판본, 임진왜란 이후의 활자본, 임진왜란 이후의 목판본, 필사본, 영인본, 중국 판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려관계 서목에는 고려 목판본 4종 4책(활자본의 복각본 『南明泉和尚頌證道歌』 1종 1책 포함), 고려관의 영인본 4종 5책(일본 소장본의 영인본 1종 2책 포함), 임진왜란 이전 목활자본 1종 1책, 합계 9종 10책이 있다.

임진왜란 이전의 활자본에는 경자자본 4종 4책, 갑인자본 15종 45책, 을해자본 18종 66책, 을유자본 2종 5책, 갑진자본 19종 38책, 임신자(경오자)본 2종 2책, 계축자본 2종 2책, 병자자본 6종 22책, 목활자 및 제주갑인자본 3종 3책, 합계 71종 187책이 있다.

임진왜란 이전의 목판본에는 판종 등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 나열하였는데, 합계 42종 114책이 있다.

임진왜란 이후의 활자본에는 『원종공신록권』 및 어제시문 보감류 87종 198책(실록자본 11종 13책, 갑인자본 38종 77책, 목활자본 1종 1책, 현종실록자본 18종 86책, 정리자본 5종 7책, 정리자체목활자본 1종 1책 등과 필사본 1종 1책, 정유자본각본 1종 1책, 목판본 11종 11책 포함), 훈련도감자본 45종 292책(번각본 3종 22책 포함), 현종실록자본 16종 123책, 행서체목활자본 7종 39책, 3주갑인자본 48종 383책, 한구자본 26종 148책, 교서관필서체자본 12종 39책, 사마방목 및 문무방목류 91종 94책(행서체목활자본 2종 2책, 3주갑인자본 69종 69책, 정리자본 6종 9책 등과 목판본 13종 13책, 필사본 1종 1책 포함), 초기인서체활자본 8종 34책(지방목활자본 2종 3책 포함), 교서관인서체자본 95종 540책(제1교서관인서체자본 28종 182책, 인서체목활자본 9종 21책, 제2교서관인서체자본 49종 314책, 사역원활자본 1종 6책, 미상자 8종 17책 포함), 정유자본(4주갑인자본) 27종 143책(복각본 1종 포함), 정리자본(생생자본) 35종 94책(내사본 7종 포함), 전사자본 65종 186책, 취진자본 4종 29책, 후기목활자본 185종 701책(관상감목활자본 14종 110책, 기영목활자본 1종 4책, 인보목활자본 10종 33책, 지방목활자본 97종 285책, 정리자체목활자본 18종 82책, 인서체목활자본 13종 58책, 전사자체목활자본 5종 25책, 소형필서체목활자본 8종 31책, 소형목활자본 6종 31책, 학부인서체목활자본 8종 10책, 일본에서 인쇄한 3종 3책을 포함한 한글활자본 4종 20책, 목판본 1종 12책 포함), 연활자인본 40종 118책이 있다.

47) 국립중앙도서관 편, 『一山文庫目錄』(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70). 이 목록에는 1,116종 5,104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밖에 의서류는 모 제약회사 도서관에 기증하였다.

임진왜란 이후의 목판본에는 판종 등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 나열하였는데, 함께 69종 148책이 있다.

임진왜란 이후의 필사본에는 단순 나열된 21종 28책(일본 필사본 1종 3책 포함)이 있다.

영인본에는 10종 49책이 있다.

중국 판본에는 당판 귀중 도서로 元판 2종 25책, 明판 5종 61책, 합계 7종 86책이 있고, 당판 도서로 92종 1,322책(明판 4종 38책, 필사본 2종 46책, 영송본 1종 20책, 일본판 1종 6책, 기타 淸판 포함)이 있다.

기타에는 5종 39책이 있다.

이같은 일산의 장서 구축은 판본학적 특징을 띤 한국서지학을 어떻게 연구하여야 하는가? 고서 실물 목도의 필요성을 묵시적으로 인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일산이 연구한 한국의 고인쇄기술 발달사와 일산문고는 바로 한국 서지학의 기초이면서 전부였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일산의 한국 서지학 연구의 관념은 지금의 서지학도까지도 지배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 6. 結 論

1) 한국의 서지학은 판본학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판본의 생산 방법인 인쇄와 인쇄문화발달사는 판본학이며 한국 서지학 그 자체이다.

2) 한국의 인쇄술은 목판인쇄와 활자인쇄 모두 중국에서 발명되자마자 수입되어, 중국과 대등하게 발달하였다. 특히 활자 인쇄의 발달은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찬란하였다.

3)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목판본 『無垢淨光大陀羅尼經』과 『팔만대장경』의 경판을 보유하고 있다. 금속활자는 서양보다 200년 이상 앞서 발명하였으며, 그 발명작도 보유하고 있으며, 현존 最古의 금속활자본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을 1377년에 인쇄하였다. 이후 70여 종 이상의 활자를 조성하여 서적을 인쇄하였다. 이점에서 한국 고인쇄문화의 위상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4) 일산은 목판인쇄문화사, 활자인쇄문화사, 인쇄기술사 및 근대인쇄에 이르기까지 개척적인 연구는 물론 일산문고를 구축함으로써 불모지였던 한국 서지학이 발달할 수 있는 기반을 탄탄히 닦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고인쇄문화의 세계적 위상도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공헌하였다.

<참고문헌>

- 金簡. 『武英殿聚珍版程式』. 紀昀等總纂. 『影印文淵閣四庫全書』. 臺北: 商務印書館, 1983. 제673책.  
『南明泉和尚頌證道歌』. 고려복각본.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MSS극동부. 109.  
徐有棻. 『林園十六志』. 卷 105. 怡雲志. 윤병대 편. 『書誌學選讀』. 서울: 경인문화사, 1977.  
沈括 지. 胡道靜 고증. 『夢溪筆談校證』. 臺北: 世界書局, 1961.  
葉德輝. 『書林清話』. 臺北: 世界書局, 1974.  
(淸)王槩 등저. 『芥子園畫傳』. 日本嘉永3(1850)년 斐屋孫兵衛翻刻中國餛板刻本.  
王禎. 『農書』. 『萬有文庫』. 第12集 簡編五百種內. 臺北: 商務印書館.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탐구당, 1974. 468-550.  
李奎報. 『東國李相國後集』. 高麗 高宗 38(1251)년 木板後刷本. 한국은행 소장본(819, 아72).  
鄭麟趾. 『高麗史』. 臺北: 文史哲出版社, 1972.  
『中庸章句大全』. 朝鮮戊子新刊嶺營藏板 후쇄본.  
(明)胡正言. 『十竹齋書畫譜』 16권 16책. 日本明治11(1878)년 5월 22일 大阪府前川善兵衛覆刻中國 嘉慶22(1817)년 餛板刻本.  
  
국립중앙도서관 편. 『一山文庫目錄』.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1970.  
金斗鍾. 『李朝實錄活字 古圖書展示會』. 『韓國活字印刷展示目錄』. 서울대학교圖書館.  
金斗鍾.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탐구당, 1974.  
남권희. 『세계 최초로 주조된 금속활자 증도가자와 고려시대 금속활자』. 서울: 다보성고미술, 2011.  
남권희. 『직지보다 앞선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證道歌字』. 서울: 다보성고미술, 2010.  
潘吉星. 『中國, 韓國與歐洲早期印刷術的比較』. 北京: 科學出版社, 1997.  
史金波, 雅森吾守爾. 『中國活字印刷術的發明和早期傳播』.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0.  
沈喆俊. 『「無垢淨光經」傳入與否攷』. 서울: 삼희출판사, 2002.  
王叔岷. 『校讎學』. 臺北: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1995.  
曹炯鎮. 『中韓兩國古活字印刷技術之比較研究』. 臺北: 學海出版社, 1985.  
千惠鳳. 『羅麗印刷術의 研究』. 서울: 경인문화사, 1980.  
Robert Friedman. 『The Life Millennium: The 100 Most Important Events and People of the Past 1,000 Years』. New York: LIFE BOOKS Time Inc, 1998.  
  
金斗鍾. “高麗鑄字本の 重刻本과 南明泉和尚頌證道歌.” 『書誌』 제1권 제2호(1960. 8). 19-27.  
金斗鍾. “高麗板本에 대하여.” 『古文化』 제1집(1962. 5).

- 金斗鍾. “近世朝鮮 後期活字印本에 관한 綜合的 考察.”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大東文化研究』 제4집.
- 金斗鍾. “書體上으로 보는 近世朝鮮活字體의 變遷.” 『書誌』 제1권 제1호(1960. 2). 17-29.
- 金斗鍾. “李氏朝鮮의 後期活字의 改鑄와 潛谷先生의 三代의 貢獻.” 『庸齋白樂濬博士還甲紀念國學論叢』 (1955. 9).
- 金斗鍾. “壬辰亂後의 活字印本, 訓練都監字.” 『斗溪李丙燾博士古稀紀念論文集』. 『震檀學報』 제29·30합병호.
- 金斗鍾. “鄉藥救急方.” 『圖書』 제5호(1963. 9).
- 盧前. “書林別話.” 喬衍瑄·張錦郎 공편. 『圖書印刷發展史論文集續編』. 臺北: 文史哲出版社, 1979. 137-146.
- 沈喁俊. “『無垢淨光大陀羅尼經傳入與否攷』의 補篇.” 『서지학연구』 제25집(2003. 6). 1-12.
- 이재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활자에 대한 일고찰.” 『서지학연구』 제29집(2004. 12). 311-343.
- 李弘植. “慶州佛國寺釋迦塔發見의 無垢淨光大陀羅尼經.” 『白山學報』 4(1968. 6). 165-198.
- 錢存訓. “論明代銅活字板問題.” 喬衍瑄·張錦郎 공편. 『圖書印刷發展史論文集』. 臺北: 文史哲出版社, 1982. 319-341.
- 曹炯鎮. “明代 無錫 華·安 兩氏 家門의 活字印刷.” 『계간서지학보』 제15호(1995. 3). 95-120.
- 曹炯鎮.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의 論爭을 통해 본 書誌學的 研究方向.” 『국회도서관보』 제35권 3호(1998. 6). 83-99.
- 曹炯鎮. “一山 金斗鍾의 韓國古印刷技術史 研究.” 『애산학보』 38(2012. 4). 115-160.
- 曹炯鎮. “清代 前期의 活字印刷.”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29집(1995. 12). 345-382.
- 曹炯鎮. “清代 後期의 活字印刷.” 『계간 서지학보』 제19호(1997. 1). 99-134.
- 曹炯鎮. “韓國朝鮮朝의 雕板印刷概述.” 淡江大學中文系漢語文化暨文獻資源研究所主編. 『昌彼得教授八秩晉五壽慶論文集』. 臺北: 學生書局, 2005. 221-228.

